

# 江臯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이 형 성\*

##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生涯와 學問的 背景
  - 1. 生애와 저술
  - 2. 학맥과 학풍
- III. 心의 純一性 志向과 講學
  - 1. 純一의 心의 發現과 敬 工夫
  - 2. 講學과 勤儉의 實踐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의 영정조 시기는 여러 분야에 안정되었다. 특히 성리학은 '聖인과 凡人의 본심에 대한 同異 논쟁'과 '사람과 동물의 본성 동이 논쟁'이 있었으나 이는 조선 전기 성리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새로운 학문과 문물 그리고 서학이 수용되면서 국내에서도 학풍이 새로이 진작되기도 하였다.

江臯 柳尋春은 18세기 중반 경상도 尙州에 태어나 家學을 계승하여 학문을 전개하였다. 가학의 연원은 퇴계학을 이은 柳成龍의 학문인 屏派였다. 그의 삶 가운데 향촌에서 생활할 적에는 우애를 도모하면서도 講學에 적극적이었고, 벼슬에 나아가 그 직무를 처리할 적에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 속에는 바로 '敬' 공부에 의한 治心(마음 다스림)을 통해 純一한 마음이 있었다.

\* 전주대학교 강사

류심춘의 사상은 당시 많은 학자들이 理氣心性을 치밀하게 탐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마음 수양 공부에 집중되었다. 특히 『심경』을 접한 이후 세 차례 강학하며 마음 수양 공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 수양의 기저에는 居敬의 정신이 있었다. ‘거경’ 공부는 마음의 純一性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마음의 순일성 지향은 바로 ‘본심’·‘양심’·‘진심’·‘도심’의 실현이었다. 이는 人欲에서 벗어나 天理를 보존한 참다운 선비로써의 공인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는 經學과 學行으로 천거되어 벼슬에 나아간 이후 마음의 순일성을 가지고 크고 작은 소임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가 강학활동에 적극적이면서도 근면한 삶으로 나아간 것 역시 ‘경’ 공부에 의한 마음의 순일성이 그 저변에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순일성 지향은 중국에 유가적 법문을 지켜 향촌사회에서 公議·公利·公益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바로 류성룡이 출사하여 奉公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학에서 크게 연유하는 면이라 하겠다. 즉 류심춘의 삶과 사상은 마음의 순일성을 지향하면서 봉공의 정신을 실현하고 위정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주제어

류심춘, 敬, 義, 心, 純一性, 講學, 勤儉

## I. 들어가는 말

조선의 18세기는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중흥을 예고했다. 이러한 예고는 문예 전반에 일어났으니, 성리학계의 ‘聖人 과 凡人의 본심에 대한 同異 논쟁’과 ‘사람과 동물의 본성 동이 논쟁’은 조선 성리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고, 또한 중국의 새로운 학문과 문물 그리고 서학에 대한 주목은 새로운 학풍을 추구하는 계기를 주었을 것이다. 18세기 중기 때 正祖는 다양한 사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당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도 부응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졌다.

江臯 柳尋春(1762~1834)은 18세기 중반에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尙州에서 오랫동안 世居한 영남의 명문가였다. 그는 당시 世事の 관심보다는 일찍이 가학인 柳成龍(1542~1607)의 학통 즉 屏派를 계승하여 학문을 탐구하면서, 특히 『心經』을 세 차례 강독하면서 心學的 경향의 학문으로 나아갔으나 그 기저에는 敬 공부가 있었다. 27세 때 鄭宗魯(1738~1816)의 문하에서 학문에 전념하였지만 그는 심학적 학문 경향을 계속 이어간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 학계에서 많이 토론되었던 理氣心性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오로지 '경' 공부에 의한 마음의 純一性을 지향하며 講學하고 또한 근검의 생활을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經學과 學行으로 천거되어 벼슬에 나아간 이후 마음의 순일성을 가지고 크고 작은 소임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논제는 상주문화원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필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논제에 유념하여 류심춘의 생애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 사상으로는 류심춘이 心, 즉 마음의 純一性을 지향하였고 또한 그 순일성에 의한 講學과 근면을 매우 중시하였기에 이 부분을 다루었다.

## II. 生涯와 學問的 背景

### 1. 生애와 저술

柳尋春은 1762(영조 38) 柳光洙의 아들로 경북 尙州 愚川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豐壤趙氏인데, 조씨 부인의 태몽에 의하면 7대조인 文忠公 西厓 柳成龍(1542~1607)이 廳事에 임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 한다. 본관은 豐山, 자는 象遠, 호는 江臯다.

류성룡은 본래 안동 河隈(: 河回)에서 세거하였으나, 그의 셋째 아들 修巖 柳軫(1582~1635)은 상주 柴里로 옮겼다. 류진은 류심춘의 6대조이다. 그의 조부 柳聖魯는 사리에서 우천으로 옮긴 뒤 후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류심춘은 가학을 계승하여 공부하다가, 15세 때 생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백부 柳潑의 양자로 갔다. 18세 2월 부친의 3년상을 마치고 가을 고을에서 실시한 鄉解에서 장원하였고, 19세 때 고성어씨 李宜秀(1745~1814)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다음해 봄 軍威 義谷에 있는 6대조 류진의 묘소에 성묘하고 그리고 류성룡을 배향한 南溪書院을 배알하였다. 24세 때 재차 고을에서 실시한 향해에 합격, 25세 봄 生員覆試에 2등으로 합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명산 俗離山을 유람하였다. 27세 겨울 于北山에서 道學을 강론하던 立齋 鄭宗魯(1738~1816)의 문하에 학문을 닦았고, 같은 해 처 외조부였던 蘆厓 柳道源(1721~1991)을 내방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종로의 문하에서 학문에 매진하니 '篤學君子'라고 칭송하였다.

첫째 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33세 12월에 金鼎華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었다. 34세 때 晦齋 李彦迪(1491~1553)이 모셔진 玉山書院을 배알하였는데, 그해 겨울 예조참판 李益運과 좌승지 林濟遠이 류심춘의 經學과 學行을 조정에 천거하자, 정조는 류심춘의 이름을 자주 듣고 殿壁

에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11월 27일 특명으로 敦勇校尉 龍驤衛 副司勇에 제수하였다. 12월 도성에 들어갔고 다음해 2월에 정조를 알현한 뒤 18일 특명으로 승정원 假注書에 임명되고 다음날 將仕郎 孝陵參奉에 제수되었다. 효릉 참봉이 되어 3월 15일 「應旨疏」를 올리자 정조의 비답이 있었다. 하지만 17일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7월 20일 繕工監 監役으로 換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12월 정조는 특명으로 禦侮將軍 副司果로 승차하였고 36세 정월 전라도 長水縣監에 제수되었다. 3월 3일 임소에 도착한 후, 설강조목을 校塾에 반포하고 훈장들을 깨우쳐주고 제생들을 모아 『小學』을 강의하였으며, 4월에는 鄉約을 마련하였다. 장수 현감으로 재직하여 교육에 힘쓰고 풍속을 바로잡아 지역민들이 그의 송덕비를 세웠다. 37세 1월에 통훈대부를 제수받고 11일에는 元子宮 講學廳의 僚屬에 선발되었으며, 4월에 鎭川縣監에 임명되었다가 靑陽縣監으로 改授되어 5월에 임소에 도착하였다. 6월에 향교에서 鄉飲禮를 행하고 8월에는 전주 慶基殿에 나아가 제향에 참여하였다. 정조의 요구에 부응하여 農書를 올렸다.

1800년 39세 1월에 정조가 특명으로 해모장군 世子翊衛 司 右翊贊이 되었다가 5월 翊衛司 司禦가 되었다. 6월에 정조가 승하하자 9월에 殯殿에 나아가 곡하고 낙향하였다. 낙향한 이후 여러 벼슬을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순조가 등극한 지 10년이 지난 후, 1811년 50세 8월 류심춘은 忠勳府 都事되고, 다음해 1월 고성군수에 제수되자 ‘노모가 있고 임지가 멀다’는 이유를 들어 체직을 청하였다. 54세 1월 書筵에서 進講하고, 3월 의성현령에 제수되어 임소에 이르렀는데, 그해 大侵이 있어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녹봉 800곡을 내어 私賑을 베프니 온전히 살아남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다. 1816년 55세 5월에 생모가 위독하자 세 차례 辭狀을 올리고 6월에 스승 정정로

가 생을 마치자 位를 만들어 곡하고서 7월에 관직을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갔다. 58세 때 생모의 상을 당했는데 조정에서 그가 상중인 것을 모르고 그에게 典設司 別提를 제수하고 東宮嘉禮時 執事로 차출하기도 했다.

류심춘은 62세 때 도산서원을 배알하여 正朝禮에 참여하였고, 1829년 68세 10월 三江書院을 배알하였으며, 11월 순조가 왕세손을 책봉하면서 桂坊官案을 열람하다가 류심춘이 두 조정의 桂僚 직책을 지냈다고 하여 하여 특별히 衛從司 左長史에 제수하였다. 다음해 69세 노구의 몸으로 서연에 입대하여 임금을 뵈었다. 세자가 흥서하자 발인하던 날에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가자 翊衛司 左翊衛로 개수했다. 9월 冊禮習儀에 참석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하자 19일 체직되고, 23일에는 그가 3세에 걸쳐 계방의 관원을 역임한 것이 희귀한 일이라고 하여 순조가 都正에 임명하는 교지를 내려 10월 通政大夫 敦寧府 都正에 승임되었다. 하지만 류심춘은 1832년 71세 6월 13일에 돈령부 관직명을 바꾸어 줄 것을 상소하여 7월에 용양위 부호군으로 遞授되었다. 그후 크고 작은 일을 하다가 二勤衛에서 1834년(순조 34) 향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sup>1)</sup>

그의 문집은 권1에서 권19까지이고 연보는 권1과 권2로 되었다. 저술을 보면 시는 권1에 146여 편이 수록되었고, 서한은 권2에서 권7까지 있다. 기타의 글은 雜著, 序, 記, 跋, 傳, 箴, 銘, 上樑文, 奉安文·告由文·常享祝文, 祭文, 誄辭, 碑銘, 墓碣銘, 墓誌銘, 行狀 등이 있다. 여기서 주요저술을 보면, 『朱書筭疑』, 『靑武講義』, 『應旨疏』, 『上農書』, 『東宮輔翼篇』(상·하) 등이 있다. 주요 글 가운데 「주서차의」는 『朱子大全』의 의

1) 이종호는 『江臯集』을 해제하면서 「연보」를 중심으로 자세히 밝혔기에 본 생애 부분은 축약하며 정리하였다 (이종호, 『퇴계학자료총서』 제8차분 해제: 『江臯集』 柳尋春 著, 『退溪學』 제1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7년).

심나는 글들을 가려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이기에 그의 학문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응지소」는 35세 때의 글로 『中庸』의 智·仁·勇으로 유가적 경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청무강의」는 그의 나이 37세 때 학문을 탐구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죽형 柳長春과 토론한 것이다. 「상농서」도 37세 때 쓴 것으로 농본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개술한 것이다. 「동궁보익편」은 69세의 고령으로 왕세손을 보도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sup>2)</sup>

## 2. 학맥과 학풍

류심춘은 퇴계학을 계승한 屏派의 학맥을 이었다. '병과'란 퇴계학을 계승한 류성룡의 학통을 이은 맥을 말한다. 류심춘은 집안에서 6세 때 十九史 배워 역사를 알았고, 8세 때 『소학』을 통해 修身 공부를 배웠다. 9세 때 『孟子』와 『詩傳』을 배웠는데 독서할 적에는 句讀에 정밀할 뿐만 아니라 뜻의 긴요한 곳에 이르러서는 그 이치를 탐구하고 완색한 뒤에 그만두었다.<sup>3)</sup> 10세 때 어머니를 따라 甲長山 동쪽 기슭에 있는 思泉 외가를 방문하였다. 그때 외사촌형 舊堂 趙沐洙(1736~1807)와 可隱 趙學洙(1739~1823)에게도 글을 배우기도 하였다.

13세 때 朱熹가 지은 『資治通鑑綱目』을 읽었고, 다음해 겨울 柴里 동편에 있는 覺古菴에 가서 『書傳』을 읽었다. 그는 16세 때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에 힘써 학업이 날로 나아갔는데, 이때 敬과 義, 그리고 선현의 말을 써 놓고 실천에 힘썼다.

2) 류심춘 사후 1841년 清白吏에 뽑혔고 1847년 전라도 長水 道巖書院에 배향되었다.

3) 『江阜集』 『江阜年譜』 卷1 「年譜」, 558쪽. 四十六年己丑(先生九歲), 受孟子詩傳(先生讀書, 不惟句讀精熟, 至於旨義肯綮處, 必究索乃已. 참조.

선생은 일찍이 修巖 선생이 ‘중일토록 고요히 앉아 있기는 쉬워도 한순간 마음을 잡아 보존하기는 어렵다’는 결안을 외우고 또 일찍이 ‘敬으로 안을 끈게 하고 義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敬以直內義以方外]·‘整齊嚴肅’·‘主一無適’ 등의 말을 써놓고 정밀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료로 삼았다.<sup>4)</sup>

‘수암’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 류진으로 류심춘의 6대조이다. 류심춘은 류진이 중시한 操存 공부를 기반으로 하여, 敬義, 그리고 송나라 학자들의 ‘경’ 공부를 원용하였다. 그의 수양 공부는 반드시 체인하고 심득한 뒤에 그만두었다.<sup>5)</sup>

17세 때 『心經』과 『近思錄』을 읽고 19세 때 『大學』을 읽었으며 20세 때 『中庸』을 읽었다. 그는 22세 때 『自警說』을 지어 나태함을 경계하였다. 특히 그는 『심경』에서 말한 治心과 養性, 致知와 居敬의 가르침으로 유가의 법문을 알기에 이르렀다.<sup>6)</sup>

류심춘은 1786년 25세 때 성현의 서책이 아니면 보지 않고 날로 六經과 四書에 나아갔고, 중국의 周敦頤·程子·張載·朱熹의 서책과 우리나라의 李彥迪과 李滉의 서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궁구하여 체험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敬’ 공부를 중시하였으니,

‘경’은 학문을 하는 사람의 가장 최상의 공부이다. <그런데> ‘경’에는 <마음이> 아직 발현하지 않았을 때[未發]의 ‘경’ 공부가 있고 ‘경’에는 <마음이>

4) 『江臯集』 『江臯年譜』 卷2 「家狀」, 580쪽. 正宗大王元年丁酉(先生十六歲). 刻苦力學, 學業日進(先生嘗誦修巖先生靜坐終日易·操存一刻難之訣, 又嘗書敬以直內義以方外·整齊嚴肅·主一無適等語, 以爲精思實踐之資.)

5) 『江臯集』 『江臯年譜』 卷2 「家狀」, 580쪽. 一日讀心經, 慨然曰遊汎終如此, 枉了此生. 於是遂發奮激厲, 銳意求道, 入鼎谷上上庵, 收心危坐, 或誦讀或思繹. 又於所處壁上, 書修巖先祖靜坐易操存難之訣, 又書敬以直內義以方外·整齊嚴肅·主一無適, 古今名言, 要必體認心得而後已. 참조.

6) 『江臯集』 卷9, 「自警說」, 356쪽 참조.



이미 발현하였을 때(已發)의 '경' 공부가 있다. 마음이 아직 발현하지 않았을 때의 '경' 공부가 없다면 어떻게 이미 발현해서 '경'하는 공부가 있겠는가? 성실함·부지런함·겸손함·노둔함이 '경' 공부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말하고 좋은 일을 실천하여 밤낮으로 계속해서 견고하면 처음을 회복하니 '경' 공부를 잠시라고 벗어날 수 있겠는가? 벗어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경' 공부가 아니다.<sup>7)</sup>

라고 하였다. 그는 1788년 27세 겨울 상주에 세거하며 학문을 전개하던 立齋 鄭宗魯(1738~1816)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다. 정종로에게 수학한 것은 류성룡의 문인 愚伏 鄭經世(1563~1633)의 6대손이자 가학의 연원이 되기 때문이었다.<sup>8)</sup>

정종로는 중년에 퇴계학맥의 중추적 인물 大山 李象靖(1711~1718)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특히 그는 屏派와 虎派의 학자들과도 두루 교류하며 학문을 전개하였다. 그의 학문은 같은 향촌에 거주한 류심춘에게 이어지고, 星州의 凝窩 李源朝(1792~1872)에게도 이어졌다. 정종로는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며 「太極圈子說」, 「太極動靜說」, 「理强氣弱說」, 「理氣心性說」 등을 지었다. 류심춘이 스승 정종로에 나아가 학문을 닦았으나,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질의가 보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이론적 학설에 대한 전개가 보이지 않는다.<sup>9)</sup> 다만 그의 전반적 글들을 살펴보면, 그의 성리사상은 理

7) 『江阜集』 『江阜年譜』 卷2 「家狀」, 580쪽. 嘗曰: “敬爲學者, 第上項工夫. 敬有未發之敬, 敬有已發之敬. 未發無敬, 安有已發而敬? 誠勤謙拙, 無非敬之事也. 念善事·言善事·行善事, 夜以繼日, 貞則復元, 敬何可須與去? 去之, 非吾所謂敬也.”

8) 『江阜集』 『江阜年譜』 卷2 「家狀」, 587쪽. 蓋我文忠公學於退陶李先生, 而修巖漁隱篤生門庭, 垂裕後昆. 修巖又從愚伏鄭先生學, 鄭先生之學得於吾文忠公, 世稱陶山再傳之嫡者也. 府君以爲立齋先生是愚翁之孫而吾家淵源也. 遂往從之.

9) 그의 理氣心性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柳心春이 그에 관해 언급한 곳은 鄭宗魯에 보낸 서한 한편이 유일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는 난해한 감이 많다. 『江

중시적 경향에 있다 하겠다.

31세 때 선현들의 책을 읽으며 그 좋은 내용을 뽑아 「自銘錄」을 지었다. 32세 봄에는 성리에 관한 여러 서책을 읽었고, 34세 때 장인 李宜秀가 『朱子書節要』을 보내주자 진기한 보물을 받듯 하며 주야로 송독하였다. 35세 3월 孝陵 참봉이 되었을 때 임금의 명에 대한 「應旨疏」를 올렸다. 이때 그는 萬化의 근본이 되는 마음 다스림(治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마음 다스리는 것은 방법이 있으니,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저 한 마음의 은미함은 천리와 인욕의 사이에 교착되어, 毫釐의 차이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당장 판명되고 잠깐의 경각에도 사람의 귀신처럼 몰래 따르니, 반드시 정밀히 살피며 분명하게 변론하고 取舍의 구분을 다하여 마음을 단단히 잡고 발을 크게 붙여 힘쓰고 부지런하다가도 얻지 못하였다면 놓지 않은 뒤에야 앎과 행동은 서로 기다려지고 안과 밖이 서로 다스려져 천하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치심’은 바로 ‘경’ 공부에 의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는 것은 ‘경’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후 11월에는 鄭經世가 『주자대전』 가운데 긴요한 부분을 뽑아 엮은 『朱文酌海』를 읽었다. 류심춘은 이 무렵 『주자대전』을 읽으며 「주자차의」를 썼다. 이 책

阜集』卷3, 「上立齋先生」, 226쪽. 伏歎, 下答公穆令書, 依教斥見, 此實理氣極精微處, 愚昧之見, 何敢說到? 但性之有本然氣質, 情之有四端七情, 其於理氣上, 已是恰當無餘, 今又分理發氣發於七情上, 或未知如何? 開歲後不擬一進承誨. 참조.

10) 『江阜集』卷2, 「應旨疏(丙辰 孝陵參奉時)」, 200쪽. 然而心有術焉, 不過曰遏人欲存天理. 夫以一心之微, 交乎理欲之間, 毫釐之差, 天壤立判; 斯須之頃, 人鬼影隨, 則必當精察明辯, 以極夫取舍之分, 而硬著心大著脚, 俛焉孜孜, 弗得弗措, 然後知行相須, 內外交修, 而天下之事可得以言矣.

은 『주자대전』의 난해한 의미를 풀이하면서도 주자학에서 벗어난 象山 陸九淵이나 불교, 기타의 내용 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견해는 주자학에 대한 학문적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그는 “踐履의 실질에 연유하여 그 앎을 이룬다〔因踐履之實，以致其知〕”는 내용에 대하여

앎을 이루어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학문규모의 선우인데, 여기서 실천으로 앎을 이룬다고 한 것은 이 또 知行輕重의 순서이다. 대체로 孝弟·忠信·莊敬·持養으로 下學의 근본을 삼는 것은 이미 먼저 앎을 이루는 공부에 있다.<sup>11)</sup>

라고 하였다. 이는 주자학적 입장에서 格物致知 공부를 우선하는 경향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천과 앎은 수레의 두 바퀴 또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으로 삼아 知行竝進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sup>12)</sup>

1798년(37세) 5월 그는 조정의 부름에 講學廳으로 나아가 『論語』·『孟子』·『西銘』을 강의하였다. 40세 때에는 『周易』 『繫辭傳』을 읽고

河洛眞源洗此心 하도와 낙서의 참된 근원으로 이 마음 씻고  
義文千古啓來今 복희와 문왕의 천고의 뜻이 앞날 열어보였네  
數陳奇耦言因著 數는 기우로 펼쳐져 말 드러나고  
理具方圓意更深 理는 方圓에 구비되어 뜻 더욱 깊네  
誰信免文猶可畫 누가 글 없어도 획을 그릴 수 있다고 믿겠는가?  
還知人易最難尋 도리어 사람 알기 쉬어도 찾기 가장 어렵도다.

11) 『江阜集』 卷8 『朱書劄疑』 335쪽. [答林謙之書] [因踐履之實，以致其知] 因致知以踐履，乃學問規模先後，而此云因踐履以致知，此又知行輕重之序。蓋以孝弟忠信莊敬持養爲下學之本者，已是先有致知工夫也。

12) 『江阜集』 卷11 『元日箴』 390쪽. 必懲者忿，必窒者慾。日知日行，乃輪乃翼。自古聖賢，啓我靡忒。一歲之元，庸蠶以勅。 참조.

清朝欲把生花露 맑은 아침나절 생화의 이슬로  
起整韋編滌我襟 주역을 정리하며 내 흥금 씻어낸다네<sup>13)</sup>

라는 詩를 지었다. 이는 『주역』에 대한 자신의 감응과 소회를 밝힌 것이나, 그 핵심내용은 治心에 있었다. 42세 1월에 『濂洛風雅』를 읽으며 도학의 시를 짓는 경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자연과 일생생활에 관한 것도 시로 많이 지었다. 특히 시에는 제자와 독서하는 데 있어 선비의 의취를 담담하게 그리기도 하였다.<sup>14)</sup> 45세 때에는 『주자서절요』를 강론하고 48세 2월에 『大學或問』을 통독하고 8월에는 『심경』을 재차 숙독하였다. 58세 때 여러 '家禮'에 관한 설을 읽었다. 61세 봄에 渭川書窩에 거처하면서 『啓蒙疑義』를 강론하고 67세 때 道院에서 講會하며 『대학』을 통독하였다. 68세 8월에 白蓮菴에 올라 세 번째로 『심경』을 강론하였고, 69세 4월에 옥동서원에 모여 『대학혹문』을 강론하였다.

류심춘은 69세 때 「東宮輔翼篇」 상편과 하편을 지었다. 이는 그가 고령으로 위종사 좌장사에 재직할 때의 글이다. 그는 동궁은 왕이 될 고귀한 신분이므로 어릴 때부터 지선하고 고귀하게 부익하지 아니하면 성군이 되는 자질에 결함이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옛날 성현들의 격언이나 嘉謨를 인용하여 輔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편은 『서경』·『주역』·『예기』·『의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글을 원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하편 역시 『소학』·『대학』·『주역』 등의 글을 원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지만, 또한 程頤의 「上輔養書」·李彥迪의 「進修八規疏」·李滉의 「聖學十圖」 등을 읽도록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잠언적 글과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sup>15)</sup> 특히 『서경』 「無逸」 편은

13) 『江臯集』 卷1 「讀繫辭」, 191쪽.

14) 권태을, 『尙州漢文學』(상주문화원, 2001년) 512쪽.

15) 이는 柳尋春이 「東宮輔翼篇」에서 원용한 글의 출처를 고찰하여 기술한 것이다.

만세토록 군주들이 경계로 삼아야 할 귀감의 글이라고 하여 遵行하도록 하였다.

류심춘은 가학으로 전승되는 류성룡의 학문에 뿌리를 두고 학문을 전개하였다. 그의 가학은 영남학파에서 병파에 속하였지만 스승 정종로의 학문적 영향으로 학문적 교류가 넓었다. 류심춘의 학문은 리기심성에 대한 치밀한 탐구보다는 '경' 공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그의 '경' 공부는 은일적 삶을 통해 내적 수양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 공부에 의한 '마음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조는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인간상 즉 선비로서의 인격을 완성하여 공인의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한 중국적으로 '마음의 순일성'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함'을 추구하면서도 구차하게 무리 짓지 않는 군자적 인격을 도모하였던 것이 바로 이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6)</sup>

### Ⅲ. 心의 純一性 志向과 講學

#### 1. 純一의 心의 實現과 敬 工夫

유학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마음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마음은 신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心腸'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마음 곧 心이 인간의 '사유와 知覺의 주체'라는 의미로 발전하면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범주가 되었다. 특히 마음은 몸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인간의 궁극적 본성을 察知하는 데에도 긴밀한 연관되었다.

16) 『江阜集』 卷3 「答粵山韓參判(致應)○乙亥」, 231쪽. 公者, 天下人之所同, 同不可以苟焉. 苟則黨也, 君子之所不取也. 참조

선진시대 공자는 “마음은 仁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sup>17)</sup>고 하였으니, 이는 마음이 ‘인’이란 표준을 지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이란 표준에 의거한 그 마음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sup>18)</sup> 맹자는 마음을 보존한다는 ‘存心’을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仁’과 ‘禮’를 제시하였다.<sup>19)</sup> 이를 보면, 공자와 맹자는 ‘인’이나 ‘예’에 의거한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에 이르러 선진시대 유학은 理와 氣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체계화되면서 마음은 본성이나 감정과의 유기적 연관을 맺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간의 순성한 본성이 天理와 동일하다는 것을 내세워 본성을 중시하였으나, 학자들은 마음에 대한 수양에서는 本心·良心·眞心 등의 발현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심은 본래 하나인데, 道心과 人心의 양분적 측면에서는 항상 도심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을 수용한 조선의 성리학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류심춘은 심의 덕목을 하늘에서 부여받은 仁義禮智 그 자체로 보았다.<sup>20)</sup> 성의 조목인 인의예지를 실현한 것을 심의 덕목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심은 본래 안과 밖이 없지만 발현하지 않은 미발상태 그리고 발현한 이발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21)</sup> 이러한 구분은 곧 動靜이나 體用, 그리고 顯微 등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17) 『論語』 『雍也』, 〈제6장〉 쪽. 子曰: “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 참조.  
 18) 『論語』 『爲政』, 〈제4장〉 쪽. 子曰: “(……)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참조.  
 19) 『孟子』 卷8, 『離婁(下)』, 〈제28장〉 쪽.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 以仁存心, 以禮存心.”  
 20) 『江臯集』 卷9 『靑武講義』, 347쪽. 德者得也, 仁義禮智, 得於天而爲吾之德, 則何必貼行底意而爲心之德耶(象) 【참고】 ‘象’은 柳尋春의 字인 ‘象遠’을 줄여 쓴 것이다.  
 21) 『江臯集』 卷8 『朱書筭疑』, 329쪽. [答張敬夫第二書] [亦若操舍存亡出入之云] 心本無內外, 以未發已發而言.

고요함은 ‘體’가 되고 움직임은 ‘用’이 되니 ‘용’은 진실로 ‘체’에서 나온다. 형상은 ‘드러남’이고 이치는 ‘은미함’이니, ‘은미함’은 ‘드러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개 이 마음은 저절로 주재하고 지각하는 곳이 있으니, ‘체’와 ‘용’이 하나의 근원인 까닭과 ‘드러남’과 ‘은미함’이 간격이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22)</sup>

라고 하여, 심 즉 마음의 주재와 지각에 의해 근원이 하나가 되고 간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形氣로서의 이목구비와 四肢를 구비하고 있다. 주재와 지각의 마음이 형기에 의하여 발현되면 마음은 자연 사욕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유학에서 심 즉 마음은 본래 하나이나, 이 형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양분되니, 그것이 바로 인심과 도심이다.<sup>23)</sup> 주희는 인심과 도심에 대해

심의 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이다. 인심과 도심이 다르다면, 그것은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혹은 性命의 올바름에 근원하므로 지각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혹은 위태하여서 편안하지 않고, 혹은 은미하여서 보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형체가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上智라고 하더라도 인심은 없을 수 없고, 또 성이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下愚라고 하더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sup>24)</sup>

라고 하여, 인심과 도심의 다른 점을 분명히 밝혔다. 류심춘은 “측은과

22) 『江阜集』 卷8 「朱書筭疑」, 330쪽. [答張敬夫] [所謂體用(止)在於此] 靜爲體, 動爲用, 而用實出於體. 象則顯, 理則微, 而微不外於顯. 蓋此心自有主宰知覺處, 體用之所以一源, 顯微之所以無間者, 於此乎在矣.

23) 『書經』, 卷2, 「大禹謨」, 71쪽. 人心惟危, 道心惟微.

24) 『中庸章句』, 「中庸章句序」, 765쪽. 하단 3행~766쪽, 상단 11행,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然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 不能無道心.”

수오와 같은 것은 비록 도심의 발현이나 조금이라도 把捉(: 파악)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형기에 간섭되어 인심의 경계로 들어간다”<sup>25)</sup>고 하였다. ‘파악한다’는 ‘파착’이란 計較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형기적 계교가 전혀 없어야 자연히 道에 직중하여 도심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sup>26)</sup> 사사로운 형기적 계교를 제거하고 이치의 시비를 관찰한다면 자연히 궁극적 도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sup>27)</sup>

그런데 류심춘에 의하면 인간의 심 즉 마음 속에는 또한 천리와 인욕의 성향이 있는데, 도심이 천리이고 인심이 인욕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는 인심이 惡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인욕이므로 인욕이 한푼씩 자라게 되면 천리도 한푼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sup>28)</sup> 그리하여 그는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경’ 공부 중시하였다. 그의 경 공부는 마음이 아직 발현하지 않았을 때나 이미 발현했을 때에도 쉽없이 줄곧 연속되는 것이다.<sup>29)</sup> 그런데 ‘경’의 성격은 義의 연관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연관은 『주역』 「坤卦」 〈文言傳〉의 “경으로 내심을 곧게 하고 의로 外儀를 방정하게 한다. 경과 의가 확립되

25) 『江臯集』 卷8 「朱書筭疑」, 331쪽. [答張敬夫] [雖云本是(止)人心之境] 如惻隱羞惡, 雖道心之發, 而纔有把捉底意思, 則便是涉於形氣, 而入於人心之境矣.

26) 『江臯集』 卷8 「朱書筭疑」, 331쪽. [即人心而識道心] 就形氣所發, 而沒這些計較, 則便是即人心而識道心也. (……) [須是都無(止)是道心也] 都無一毫把捉意思, 乃是自然中道, 純是道心也. 참조.

27) 『江臯集』 卷4 「答金公穆」, 255쪽. 吾輩只當去了一箇私字, 觀理之是非, 則自有究竟處.

28) 『江臯集』 卷2 「東宮輔翼篇(下)」, 222~223쪽. [蒙以養正, 先要收放心] 夫心豈有他? 察而別之, 則天理也人欲也. 人之生也, 固有仁義禮智之性. 然既有形矣, 則亦不能無耳目口鼻愛惡之欲, 舜所謂人心是也. 人心雖不便是人欲, 而人心之流, 是即人欲也. 人欲長得一分, 則天理消了一分, 豈不大可懼也哉? 참조.

29) 『江臯集』 『江臯年譜』 卷2 「家狀」, 580쪽. 嘗曰: “敬爲學者, 第上項工夫. 敬有未發之敬, 敬有已發之敬. 未發無敬, 安有已發而敬? 誠勤謙拙, 無非敬之事也. 念善事·言善事·行善事, 夜以繼日, 貞則復元, 敬何可須與去? 去之, 非吾所謂敬也. 참조.



면 덕이 외롭지 않다”<sup>30)</sup>는 구절에서 나온다. 여기서 ‘의’는 마음이 일을 관가름하여 마땅함(宜)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말하니, 사물이 다가올 때 ‘의’로써 관가름하여 반드시 마땅함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1)</sup> ‘경’과 ‘의’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내외적 수양의 측면에서 서로 일련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류심춘은 이에 대하여

대개 ‘경’으로 마음을 보존하면, 둘셋 또는 동서로의 갈리는 길이 없어 ‘內心’이 이에 곧게 될 것이고, ‘의’로 일을 관가름하면 절단하고 재정하는 마땅함을 얻어 ‘外儀’가 이에 방정하게 될 것이다. ‘내심’에서 주인되어 그 ‘體’가 곧고, ‘외의’로 드러나 그 ‘用’이 방정하면, ‘경’과 ‘의’가 아울러 서고 ‘내심’과 ‘외의’가 서로 올바르게 되어, 德이 나에게 있는 것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대개 ‘내심’의 곧음이 아니면 ‘외의’의 방정한 실체가 될 수 없고 ‘외의’의 방정함이 아니면 ‘내심’의 곧은 효험을 볼 수 없으니, 곧음과 방정함이 어찌 상호 필요하면서 자료하지 않겠는가?<sup>32)</sup>

라고 하였다. 류심춘 역시 ‘경’과 ‘의’가 분리되지 않고 내외적 또는 체용적 측면에서 그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경’으로 내적 마음을 보존하면 마음의 흐트러짐이나 망설임 등이 전혀 없어 내면적 마음이 곧게 되는 것이고, ‘의’로 외적 일을 관가름하면 일의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에 대한 마땅함을 얻어 외면적 행동이 방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면적 마음에 대한 수양으로서 ‘경’과 외면적 일에 대한 처리로서의 ‘의’가 體用

30) 『周易』, 卷2, 「坤」, 〈文言傳〉, 106쪽.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31) 『孟子或問』, 卷3, 245쪽. 義者, 心之所以制事, 而合宜之謂也. 事物之來, 無不以義裁之, 而必合其宜焉.

32) 『江阜集』 卷9 「金元方字說」, 356~357쪽. 易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蓋敬以存心, 則無二三東西之岐, 而內斯直矣; 義以制事, 則得截斷裁正之宜, 而外斯方矣. 主於內而其體也直, 形於外而其用也方, 則敬義竝立, 內外交正, 而德之在我者, 於是不孤矣. 蓋非內直, 無以爲外方之實; 非外方, 無以見內直之效, 惟直與方, 豈不相須而互資乎?

一源의 측면에서 확립되면 마음에 내재한 덕목 그리고 행동에 필요한 윤리 덕목이 분명하게 세워져 덕망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류심춘은 보다 더 내면적 意念의 순수성을 지향하기 위해 '경' 공부에 철두철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은 방법이 특별히 없다. 오직 '경' 한 글자에 있을 뿐이다. 그 천리인 줄 알았다면 경하여 보존하고 인욕인 줄 알았다면 경하여 막아야 한 터럭만큼의 사욕도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으니, 이것을 '순일함이 또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순일함은 하나이다. 마음이 순일한 뒤에 만사만물은 어느것 하나라도 올바르게 없음이 없을 것이다.<sup>33)</sup>

즉 '경' 공부를 통해 사욕이 마음에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천리로서의 마음이 발현할 때 過不及이 전혀 없어야 인욕으로 유실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일함이다. 주희는 '순수함'을 無二無雜이라고 하였고,<sup>34)</sup> 『통서』는 '하나'를 사욕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sup>35)</sup> 즉 '하나'는 전혀 섞임이 없이 專一하고 순수한 천리로서, 한 점의 사욕도 없는 것이다.<sup>36)</sup> 이는 선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욕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마음이 순일하게 되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그 올바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어떠한 경우라도 본심의 올바른을 가지고 好惡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sup>37)</sup> 분명하고

33) 『江臯集』 卷2 「東宮輔翼篇(下)」, 223쪽. [蒙以養正, 先要收放心] 退欲存理, 別無方法. 惟在於敬之一字. 知其爲天理也, 則敬而存之; 人欲也, 則敬而遏之, 無有一毫私欲得以介乎其間, 此之謂純亦不已, 純者一也. 心一, 然後萬事萬物, 無一之不正矣.

34) 『中庸章句』, 「제26장」, 821쪽. 純則無二無雜.

35) 『通書』, 「聖學」, 제20. 聖可學乎? 曰: “可.” 曰: “有要乎?” 曰: “有.” 請聞焉. 曰: “一爲要, 一者無欲也.” (『性理大全』, 권2, 67쪽). 참조.

36) 『通書解』, 「思」, 제9. “勉齊黃氏曰…… 一爲純一之一…… 一爲專一之一…… 純然是箇天理, 無一點私欲.” (『性理大全』, 권2, 67쪽). 참조.

올바른 호호의 감정이 드러날 때 그것이 현실에서 공적인 마음 즉 公心이 되는 것이다.<sup>38)</sup> 따라서 순일성의 마음은 고요함 가운데에서 움직임을 주재하고 움직임 가운데에서 고요함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sup>39)</sup>

류심준은 마음으로서의 ‘본심’·‘양심’·‘진심’·‘도심’을 추구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양공부의 주축은 ‘경’이었다. 그러나 ‘경’ 공부에 의거한 순일적 마음이 바로 ‘본심’·‘양심’·‘진심’·‘도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마음의 순일적 의념 지향은 바로 사욕이 벗어난 참다운 선비로써의 공인의식이 투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2. 講學과 勤儉의 實踐

류심준은 순일한 마음을 가지고 유가의 법문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가 지키고자 한 법문은 바로 유가의 禮法과 義理였는데 이 법문에서 벗어나면 선비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하여 그는 향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문인들과 강학을 실시하였다. ‘강학’에서 ‘講’은 배운 내용을 스승이나 윗사람 앞에서 그대로 암송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강학은 이치를 밝혀 주는 것이기에 선각자로써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다.<sup>41)</sup> 그렇다면, 강학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심도 있게 탐구하며 학습하는 것

37) 『江阜集』 卷8 「朱書筭疑」, 325쪽. [答黃教授書] [亦欲老兄(止)心之正耳] 當惡而惡, 乃本心之正也. 先生痛抑奸豪, 而商伯以書來規, 有非惡其當惡之意, 故勉其深察而得其本心也. 【참고】 『朱子全書』(貳拾壹) 『晦庵先生朱文公文集』(貳) 卷26 「答黃教授書」, 1156쪽. 亦欲老兄深察於公私名實之間, 而真得其所謂本心之正耳.

38) 『江阜集』 卷4 「答李穡謙(戊寅)」, 〈別紙〉 250쪽 참조.

39) 『江阜集』 卷8 「朱書筭疑」, 331쪽. [答張敬夫] [有以主乎靜中之動, 有以察乎動中之靜] 主之察之者, 心也. 참조.

40) 『江阜集』 卷3 「上外舅(乙丑)」, 235쪽. 夫吾儒家之世守法門, 不過禮法義理而已. 苟或有乖於禮法, 不循乎義理, 則其可曰儒之云耶?

41) 『朱子全書』(貳拾) 『晦庵先生朱文公文集』(壹) 卷11 「壬午應詔封事」, 578쪽. 夫講學所以明理而導之於前.

이고,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르쳐 학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류심춘은 36세 때 장수현감이 되어 향리를 잘 다스렸다. 그 이면에는 강학도 크게 작용하였으니, 그는

무릇 강학은 마음으로 보존하고 몸으로 체현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힘쓰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현명한 훈장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번 한 차례 講會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규모를 세웠다면 講儒<sup>42)</sup>가 된 사람은 마땅히 각자 면려하여 그 힘을 다해야 한다.<sup>43)</sup>

라고 하였다. 즉 강학은 올바른 내용 습득을 통해 홀로 힘쓰고 수련하는 것이다. 서책에 대한 熟讀成誦의 단계가 있어야,<sup>44)</sup> 학문은 마음에 보존되고 몸에서 체현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강학에서 익숙한 독서만이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배우는 사람이 講究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자질은 더욱 혼매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5)</sup> 그리하여 그는 ‘강학’ 두 글자에 유념하며 학문을 탐구하였을 것이다.<sup>46)</sup> 류심춘은 세자를 보익할 때 “대학은 처음 배우는 이가 德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大人의 학문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2) 講儒: 유학을 연마하는 선비를 말한다.

43) 『江臯集』 卷9 「諭長水各塾訓長文, 358쪽. 夫講學者, 所以存之心而體之身, 則此乃學者之所當自勉而自修處也. 然其引進之方, 必待訓席之賢, 向者一番講會, 已有略立規模, 則爲講儒者, 所宜各自勉勵以盡其力.

44) 『江臯集』 卷7 「與金大臨(癸酉), 310쪽. 鄙意小學一書, 不可不熟讀成誦者, 於君爲受用, 似尤切故也. 참조.

45) 『江臯集』 卷4 「答金炳如, 262쪽. 惟是昏愚之質, 初無講究之工. 참조.

46) 『江臯集』 卷6 「答康景訥(敏淳)○癸亥, 262쪽. 近爲一二朋友勉誘之勤, 雖欲收召精神, 留意於講學二字. 참조.

한 책 속에 조리와 맥락은 지극히 정밀하다. 진실로 정신을 쏟고 잠잠히 궁구하지 않으면 實得의 견해를 말하기 어렵다. 세자가 배워 '덕'에 들어가는 날에 당하여 먼저 이 책(『대학』)으로 書筵 앞에서 講明하여 글의 뜻을 자세히 말하며 몇 달동안 쌓아가도록 한다면, 한가로이 지내며 배불리 먹으면서도 살펴보며 개발될 것이다. 마치 江河가 스며들듯 하고 단비가 적시듯 하여 마음이 즐겁게 되고 이치가 순조롭게 되어 접촉하는 곳마다 명료게 되어 격물·치지·성의·정심의 공부에 나아가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에 이를 것이다.<sup>47)</sup>

즉 강학은 마음을 비우고 숙독하며 정밀히 생각하고 체인하여 실득의 견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날로 강구하고 토론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얻는 것은 마땅히 더욱 깊고 보는 것은 마땅히 더욱 정밀하게 되기 때문이다.<sup>48)</sup> 그의 강구와 토론은 외적인 것에 힘쓰고 博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인하여 실득하기 위한 階梯的인 것이었다.<sup>49)</sup>

류심춘을 강학을 하면서도 강인한 의지로 기질이 난잡하지 않도록 하였다.<sup>50)</sup> 이는 그가 젊었을 때 부친의 訓誨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근면하고 나태하지 않는 삶을 지극히 추구하였다. 그는 「自警說」을 지어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근면하도록 하였으니,

나는 본성이 천하 사람들이 함께 얻은 것이라고 들었으니, 어찌 나만이 없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내가 독서가 근면하지 않아 그러한 것이다. 장차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 근면하도록 하고,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견고하도록

47) 『江阜集』 卷2 「東宮輔翼篇(下)」, 220쪽. [大學是初學入德之門, 而大人之學也] 一篇之中, 條理脈絡, 至爲精密. 苟非留神潛究, 難可以與言於實得之見. 當此睿學入德之日, 首以此書日使之講明於書筵之前, 而陳說文義, 積以時月, 則優游饜飫, 觀省開發. 若江河之浸, 膏澤之潤, 怡然理順, 觸處洞然, 進之格致誠正之工, 達之修齊治平之道矣.

48) 『江阜集』 卷4 「答金炳如」, 262쪽. 日有講討之樂, 所得當益深, 而所見當益精. 참조.

49) 『江阜集』 卷4 「答鄭明應(辛丑)」, 267쪽 참조.

50) 『江阜集』 卷9 「自銘錄」, 354쪽. 持其志, 使氣不能亂.

하며, 어둡고 약한 사람이 현명하며 강하도록 하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이 개발되고 나아가도록 한다면 그 도는 어디에서 연유하겠는가?<sup>51)</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근면한 독서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그가 淸寒한 가정에 태어나 직접 일에 종사하다 보니 자신의 의지가 약하게 되는 것을 극복하고 勉強의 정신을 추구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삶 속에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안의 가풍들이 퇴색하고 사회적 풍속이 무너져 짐차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자 務本 즉 근본을 힘쓰도록 하기 위해 「儉說」도 지었다. 그는 첫머리에서 “검소함은 덕의 근본이 되고 옷은 몸을 가려주는 것이 된다. 옷은 하루도 입지 않을 수 없고 검소함은 하루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sup>52)</sup>고 하였다. 즉 옷의 화려함보다는 인간 생활에 검소함이 덕을 함양하는 근본이 됨을 주지시키는 것이었다.

더욱이 류심춘은 동궁을 보필할 때 안일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서경』의 「無逸」 편은 만세에 임금의 귀감이 된다고 하면서

안일함(逸)은 예로부터 임금의 큰 경계이다. 위대한 순임금의 성스러움으로도 益은 오히려 “안일한 것에 놀지 말며 즐거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하였으니 뒷날 임금은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익은 순임금의 ‘罔逸·罔淫’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規戒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은 대개 신하가 임금을 면려하는 도가 본래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대개 이 艱難의 상태를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보존되고 마음

51) 『江臯集』 卷9 「自警說」 355~356쪽. 吾聞性者, 天下人之所共得也, 豈吾獨無之也? 是必吾讀書不勤而然也. 將使不勤者而勤, 不固者而固, 昏弱者而明且強, 墮地者而開且進, 則其道何由?

52) 『江臯集』 卷9 「儉說」, 354쪽. 儉爲德之本, 而衣爲體之蔽. 衣不可一日而或廢, 儉不可一日而不修也.

이 항상 보존되어 잊지 않는다면 한가하고 안일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생겼는가?<sup>53)</sup>

라고 하였다. 즉, '무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일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류심춘에 의하면,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은 항상 환난을 생각하여 순일한 마음을 보존하면 안일함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환난의 상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위정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것을 요구함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그의 강학은 유가적 범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면서도 향촌사회에서 公議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근면의 실천성은 公利와 公益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강학과 근면은 유학자로서 奉公의 행위를 당연시하면서 몸소 실천하며 도덕적 책임의식을 다하는 것이었다.

#### IV. 맺음말

조선은 18세 중후기 정조에 이르면 정국이 안정되어 문예가 전반적으로 흥성하였다. 특히 近畿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청나라의 학문과 서학이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학풍이 흥기하기에 이르렀다.

류심춘은 상주 향촌에 살면서 가학을 계승하였다. 그의 가학은 퇴계

53) 『江阜集』 卷2 「東宮輔翼篇(下)」, 220~221쪽. [無逸一篇, 最爲萬世人主之龜鑑] 逸者, 自古人君之所大戒也. 以大舜之聖, 益猶以罔遊于逸·罔淫于樂戒之, 則後來人主, 其可以斯須忽之哉? 益非不知舜之罔逸罔淫, 而猶不忘其規戒之意者, 蓋人臣勉君之道, 自不得不然故也. (……) 蓋念此艱難之狀, 則心常存, 心常存而不忘, 則暇逸之心, 何由而生哉?

학을 계승한 류성룡의 학문인 병파였으니, 학맥은 퇴계학맥이었다. 그러나 그의 학풍은 리기심성에 대한 치밀한 탐구보다는 마음 수양에 집중되었다. 특히 10대 중반 『심경』을 접한 이후 세 차례 강학을 하며 마음 수양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 수양의 기저에는 居敬의 정신이 있었다.

류심춘은 거경 공부에 의한 ‘본심’·‘양심’·‘진심’·‘도심’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순일성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본심’·‘양심’·‘진심’·‘도심’에 대한 지향은 그의 학문이 심학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심학적 경향에서 마음의 순일적 의념 지향은 바로 사육에서 벗어난 참다운 선비로써의 공인 의식이 투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유가의 순수한 수양적 학문 체계로 참다운 예법과 의리의 학풍을 영남에서 진작하고자 하였다.<sup>54)</sup>

공인 의식에 투철한 류심춘은 선비로써 유가적 법문을 지키기 위해 강학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또한 근면의 삶을 지극히 추구하였다. 이는 향촌 사회에서 公議·公利·公益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류성룡이 출사하여 奉公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학에서 크게 연유하는 면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류심춘은 리기심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보다는 유가의 순수한 수양적 학문 체계를 통해 유가의 이념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특히 체용일원의 측면에서 심 즉 마음의 순일성을 지향하였다. 이는 중국에 마음과 본성이 서로 일치시키는 심학으로 나아간 학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순일성 지향은 현실에서도 어느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일을 잘 調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sup>55)</sup> 특히 마음의 순일성에 의한 강학과 근면은 봉공의 행위를 당연시하면서 위정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54) 『江臯集』 卷3 「上外舅(乙丑)」, 236쪽 참조.

55) 『江臯集』 卷4 「答李穡謙(丁丑)」, 249~250쪽 참조.



끝으로, 류심춘이 평생 지향하였던 삶과 심학적 경향의 내용을 소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가정마다 詩書의 가르침을 익히면 사람마다 禮讓의 풍의를 일으키네. 학문을 강마하고 이치를 밝히는 공부, 斯文에 의지하면 실추되지 않고,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는 의리, 古道에 따라 거듭 실행한다네. 體와 用 곧 하나의 근원이니 마음 보존하는 것 본성 보존하는 것이라네. 忠과 孝 두 이치가 없으니 어버이 섬기는 것 임금을 섬기는 것이라네. 가르치는 방법 저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의지해 돌아갈 곳 되리라.<sup>56)</sup>

이 내용은 「弄淸臺重建上樑文」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그가 평생의 삶과 사상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염원의 上樑 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내용이야말로 그의 全貌를 미진하게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書經』, 보경문화사, 1983년.  
 『經書』(『大學』, 『論語』, 『孟子』, 『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년.  
 『江阜集』(『韓國文集叢刊續』 106, 민족문화추진회, 2010년.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0년.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發行, 東國文化社, 1957년.  
 최영성, 『한국유학통사』(상·중·하), 심산, 2006년.  
 권태을, 『尙州漢文學』, 상주문화원, 2001년.  
 오하마 아끼라(大濱皓)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원제: 朱子の哲

56) 『江阜集』 卷9 「弄淸臺重建上樑文」, 391쪽. 家習詩書之教, 人興禮讓之風, 講學明理之工, 斯文賴而不墜; 隆師親友之義, 古道從而復行. 體用即一源, 存心所以存性, 忠孝無二致, 事親所以事君. 不負教迪之方, 永作依歸之所.

學), 예문서원, 1997년.

金子相, 「江阜 柳尋春의 東宮輔翼篇 考察」, 『尙州文化研究』 제12집, 尙州産業大學校 尙州文化研究所, 2003년.

이중호, 「『퇴계학자료총서』 제8차분 해제: 『江阜集』 柳尋春 著」, 『退溪學』 제1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7년.

Abstract
----------

## A Study on the Life and Idea of Gango(江阜) Ryu Sim-chun(柳尋春)

Lee, Hyung-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fe and thought of Ryu Sim-chun. He was born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He succeeded and developed the studies of his family that had been originated from Ryu Seong-ryong.

He tri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is brothers and friends when he was living in his hometown and make utmost efforts to fulfill his duties disinterestedly after he was appointed as a government official. He was able to achieve the pure state of mind by cultivating his mind through continuous learning of 'Gyeong(敬: reverence)' throughout his life.

The thought of him was focused on cultivating his mind rather than following the tendency of other scholars at that time to research the idea of Igisimseong(理氣心性: the principle of universe and the nature of human mind). There was the spirit of 'Geogyong(居敬: Keeping self awareness) at the base of his training and learning. Learning 'Geogyong' required him to keep the purity of his mind. Keeping the purity of the mind was to materialize 'Bonsim(本心: Real mind)', 'Jinsim(眞心: true mind)' and 'Dosim(道心: Tao mind)' and was connected to the public consciousness of a true classical scholar who was able to preserve the nature of the universe, overcoming worldly desires. His thrift life based on constant learning and self-discipline could be ascribed to the purity of his mind to learn 'Gyeong', in principle.

In conclusion, the life and thought of Ryu Sim-chun were considered to have focused on achieving the purity of mind and the idea to realize personal good and faithfully fulfilling his moral obligation as a government official.

Key Word

Ryu Sim-chun, Gyeong(敬), Sim(心), Keeping the purity of the mind(純一性), learning and self-discipline, thrift life

- 논문투고일 : 2011.12.19 심사완료일 : 2012.2.6 게재결정일 : 2012.2.10